

# 해외 타이어 시장 기타 단신

## 캐나다 캐나다, 대형 타이어 없어서 못 판다

일반승용차 및 버스용타이어를 제외한 대형타이어부문에서 한국산의 캐나다 진출이 미미한 가운데 캐나다시장에서는 광산트럭 및 중장비용 대형타이어가 심각한 부족현상을 보이고 있어 한국기업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캐나다의 대형타이어 부족현상은 국제 원자재 시세가 연일 초강세를 보이면서 석탄, 니켈, 구리 등을 채굴하는 광산기업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고 자연히 각종 트럭 및 중장비 수요와 함께 타이어의 수요도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철용 석탄 수출 부문에서 세계 2위(05년도 예상생산량: 2700만톤)를 차지하고 있는 캐나다 Elk Valley Coal Partnership의 최대 지분 소유기업인 Fording Trust사는 타이어 수명을 연장하는 방법, 타이어 압력과 온도를 모니터링하는 새로운 기술 및 향후 타이어 비용을 크게 절감할 것으로 기대되는 two-piece 타이어 등을 시험 중에 있다고 밝히며 타이어 부족현상이 석탄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할 것으로 밝히고 있다.

〈 캐나다 건설·산업용타이어수입현황 〉

(단위 : 달러)

국가	2003	2004	2005 1~4월	증감율(%)
미국	99,223,272	115,977,596	52,782,375	19.7
일본	31,632,679	27,087,184	11,649,261	19.8
중국	12,990,407	15,697,879	8,297,387	75.1
스페인	11,412,409	12,244,576	5,267,184	34.5
프랑스	11,112,005	10,333,836	3,447,469	-10.2
대만	5,832,246	6,190,191	2,294,233	17.6
스리랑카	1,669,050	3,551,352	1,624,681	137.8
폴란드	1,651,670	1,792,116	1,208,072	3.2
헝가리	1,766,968	1,494,477	970,546	12.0
핀란드	856,600	1,198,254	782,943	177.6
한국(27위)	304,015	293,193	53,357	-16.1
총계	190,502,827	210,928,427	93,554,452	23.8

주 : HS Code 401160, 401190기준 (자료 : 캐나다 통계청, 2005.7.26현재)

한편, 한국산타이어의 경우에는 주로 승용차 및 버스용 타이어를 위주로 캐나다에 진출하고 있는데 04년 기준 연간 약8290만 달러를 수출해 대(對) 캐나다 타이어 수출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05년 1~4월 기간 중에도 전년동기대비 14.7%가 증가한 약2900만 달러를 수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 계

유 럽

기타지역

〈 캐나다 승용차·버스용 타이어 수입현황 〉 (단위 : 달러)

국가	2003	2004	2005 1~4월	증감율(%)
미국	871,970,607	1,006,114,083	327,867,291	3.7
일본	107,738,416	139,090,725	54,783,089	60.3
한국	72,225,776	82,920,641	29,014,057	14.7
중국	22,011,105	41,765,249	23,897,253	138.5
포르투갈	1,514,394	29,156,830	12,735,081	106.8
멕시코	8,424,922	24,742,824	9,196,543	278.5
독일	12,287,241	19,165,776	7,171,002	61.2
총계	1,189,966,491	1,470,021,454	512,321,453	18.2

주 : HS Code 401110, 401120, 기준 (자료원: 캐나다통계청, 2005.7.26현재)

한국산타이어는 캐나다시장에서 가격대비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고 있으나 대형 중장비용타이어 부문의 진출은 전체수입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진출이 미미한 편이어서 동분야의 대캐나다 수출을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기회로 사료된다.

참고로 캐나다로 수입되는 승용차 및 버스용타이어는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미국, 멕시코, 칠레 등 국가산은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으며 한국을 비롯한 여타 국가산은 7%의 수입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또한, 대형 산업용타이어의 경우에도 자유무역체결 국가산은 무관세로 수입되는 반면, 여타국가산은 품목에 따라 무관세에서 6.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최근 한국, 캐나다 양국정부는 자유무역협정체결을 위한 협의를 공식 발표한바 있어 한국, 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한국산타이어의 가격 경쟁력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KOTRA 벤쿠퍼무역관, 05.7.29〉

### 폴란드 폴란드 승용차 타이어 시장 지속 성장

폴란드에서 승용차타이어에 대한 수요와 판매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03년의 경우 수요는 20% 증가했으며 04년에는 10%가 더 증가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05년 폴란드에서는 약760만개의 새 타이어가 판매될 전망이며 판매성장률은 3.1%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규모의 판매가 예상되는 타이어는 스피드 210km/h까지 가능한 H타입 타이어로서 12.3%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으며 V, W, Y, Z 타입의 고속용 타이어 또한 큰 판매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일반타이어(S,T

형)은 1.6%, 겨울용 타이어는 2.4% 판매성장이 예상된다.

폴란드에서 이처럼 타이어분야가 활성화 되는 주요 이유는 운전자들이 도로상에서 안전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됐기 때문이다. 더 많은 운전자들이 이제는 타이어가 안전운전에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제 모든 계절에 사용하는 타이어는 인기를 잃어가고 있는 반면 점점 많은 운전자들이 여름용, 겨울용 타이어를 별도로 소유하는 추세이다.

폴란드 국내 주요 타이어제조업체는 모두 외국계 회사에 합병이 되었는데 그 중에는 Goodyear사에 합병된 DEBICA사, Michelin사에 합병된 STOMIL사가 있다. 폴란드에 진출한 주요 외국계 타이어업체에는 BRIDGESTONE, GOODYEAR, PIRELLI, MICHELIN, BARUM, CONTINENTAL사가 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폴란드 타이어시장에서 인기가 있는 타이어는 고속성능을 요구하지 않는 중 소형차에 적합한 DEBICA, STOMIL, BARUM등의 타이어이며, 보다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이 비싼 타이어는 고속주행이 가능한 중형차를 소유한 운전자들이 주로 구매하고 있다.

타이어 규격별 시장점유율을 보면, 175/65/R/14가 15.1%, 155/80/R/13이 14.0%, 205/55/R/16이 10.3%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산 타이어는 폴란드시장에 그리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있으며 단지 한국타이어만 일부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는 최근 한국타이어의 슬로바키아 투자건과 관계가 있다. 한국산 타이어의 폴란드수출은 2003년 9만 4000달러에서

2004년 상반기 80만 3000달러로 큰 폭으로 증가해 향후 더 많은 수출이 예상되고 있다.

〈KOTRA 바르샤바무역관, 05.7.7〉

### 중국, 페타이어 재생산업 전망 밝아

자가용 인구가 늘면서 페타이어도 같이 증가하고 있는데 중국 타이어재생이용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04년 말 현재 중국 내 페타이어 생산량은 이미 1억개가 넘었고 약 천만 개가 재생 불가능해 바로 폐처분해야 한다고 한다.

이들 전에는 동관의 완다(万達)그룹과 러시아의 한 기업이 3억 위안의 페타이어 재생설비 관련 서명 의식을 가졌는데 완다그룹에 따르면 현재 유가 상승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개인이 페타이어를 연료로 사용해 이익을 챙기는 현상도 빚고 있다고 한다. 이는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기 때문에 페타이어의 회수에 관한 정책 및 법규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3년 연속 세계 고무 소비대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중국 타이어재생이용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중국에서 소비한 고무는 420만톤에 달하고 이 가운데 237만톤은 수입한 것으로 미국을 따돌리고 1위를 차지했다. 2004년 중국 자동차 보유대수는 4000만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같은 해 507만대의 자동차를 생산했고, 특히 타이어는 2억 3,900만개를 생산해 신생타이어 생산량은 세계 2위이다.

중국은 최근 몇 년 동안 타이어재생산업이 빠르게 성장해 전국적으로 페타이어의 재생 능력은 1,500만개에 달한다. 페타이어를 오랫동안 노천에 방치하게 되면 불필요하

계 토지를 점유하게 되고 벌레가 자생해 질병을 전염시킬 가능성이 높아지며 화재의 염려도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오염 요소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페타이어의 증가는 중국 환경보호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중국은 국토가 넓고, 페타이어가 광산, 민가 등 널리 방치되어 있어 수거상 일정한 곤란한 점이 있고 운송비도 만만치 않다.

현재 중국내 6대 폐기 물자 가운데 고철금속(동,철)의 연간 회수율이 최고로 85%에 달하며, 회수율이 가장 저조한 폐유리의 경우 13%에 지나지 않는다. 폐 고무의 연간 회수율은 47%로 중간 수준에 속한다. 그리고 타이어의 회수 이용율은 80%이다. 현재 페타이어의 재생이용율은 아주 낮은 수준인데 중국내 재생기술이 뒤떨어진 것이 주요 원인이며 재생타이어의 주행거리는 신생타이어의 5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러나 다른 외국의 경우 80%이상 심지어 신생타이어의 수명보다 오래 가능 경우도 있다고 한다.

(KOTRA 광저우무역관, 05.5.20)

〈 연도별 중고타이어 수입통계 (HS 401220) 〉 (단위 : 달러)

국가	2002	2003	2004
미국	4,176,684	4,569,300	4,326,080
일본	664,318	656,380	684,313
독일	63,040	133,581	33,964
캐나다	19,113	42,722	45,062
한국	26,106	9,505	0
합계	5,124,439	5,546,031	5,199,298

주 : HS Code 401110, 401120, 기준 (자료원: 캐나다통계청, 2005.7.26현재)

신생 타이어를 수입 공급하는 업자에 따르면, 중고타이어는 지난 몇 년간 과테말라의 경기침체로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수입업자간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고 한다. 한 수입업자는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타이어의 거의 대부분은 신생 타이어며, 이는 자동차 사용 법안과 상황의 변화 때문이다.

수입업자에 따르면, 중고타이어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높는데 이는 자동차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고타이어 시장은 지난 2년간 매년 10%정도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수요가 많은 타이어는 RIN 12,13,14 그리고 15다. 10년 전에는 RIN12가 가장 수요가 많았으나, 현재는 RIN13과 14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과테말라는 매년 중고 타이어 수입액은 US\$5 백만 정도가 된다.

미국이 최대 공급국이며 일본이 뒤를 잇고 있다. 수입업자들에 따르면 선진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중고타이어는 자국이 환경보호를 위한 것으로 품질이 거의 신타이어 수준에 가깝다고 한다. 중고타이어에 대한 수입관세는 CIF 수입가격기준으로 15%이다. 수입관세가 포함된 가격에 추가로 부가세를 12% 납부하여야 한다.

(KOTRA 과테말라무역관, 05.5.26)

### 과테말라 과테말라, 중고타이어시장 유망

과테말라에서 중고타이어는 20년 전부터 판매 되어져 오고 있다. 오늘날에는 미국, 일본, 그리고 독일에서 중고타이어를 직접 수입하는 수입업자는 800명 정도 된다. 중고타이어가 과테말라 사용자들 사이에서 좋은 평판을 얻지 못했지만(제품 질과 오염으로 인함), 현재 수입업자들은 중고 타이어 수입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오늘날 소비자들은 질과 가격 면에서 신생타이어나 재생타이어와 비교 할 수 있는 중고 타이어나 거의 신생 타이어 수준의 중고 타이어를 찾고 있다.